

팬수와 함께하는 '비타500 데일리스틱' 이벤트

광동제약은 19일까지 공식 SNS에서 '비타500 데일리스틱 팬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팬수에게 응원 받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해 비타500 데일리스틱 1박스(70개입)를 제공한다. 또 20일부터 5월15일까지 광동생활건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타500 데일리스틱 구매 후 상품평을 작성하면 우수작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준다. 정용운 기자



비즈 트렌드 | 르노삼성 'XM3'·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돌풍 비결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 2만 대를 돌파하며 르노의 핵심 차종으로 떠오른 'XM3'(왼쪽)과 3월까지 3795대를 판매하며 한국지엠의 부활을 이끌 주력 차종으로 자리매김한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제공 | 르노삼성·한국지엠

몸매 예뻐 반하고...힘이 좋아 혹하고...

〈르노삼성 'XM3'〉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XM3, 디자인 정말 잘 나왔다" 호평
유려한 루프라인...영상보다 실물 굵

"트레일블레이저 달리기 성능 최고"
폭발적 가속감...연비·넓은 공간 덤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이 14일 나란히 2019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양사에서 올해 초 야심차게 출시한 신차가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신차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출 물량 확보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노사감정이 융합되면서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이 3월 출시한 소형 SUV XM3는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 2만 대를 돌파하며 르노의 핵심 차종으로 떠올랐고, 한국지엠이 1월 선보인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는 3월까지 3795대를 판매하며 한국지엠의 부활을

이끌 주력 차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두 차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동력을 살펴봤다.

●자동차는 디자인! 실물이 더 멋진 'XM3'

쿠페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SUV인 XM3는 출시와 동시에 BMW X4나 메르세데스-벤츠 GLC 쿠페 등과 비교되며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아름답다. 유려하게 빠진 루프라인을 보고 있으면 절묘한 비율에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

인테리어의 완성도도 높다. 푸조나 MINI 등을 연상케 하는 피아노 건반 방식의 토글 스위치, 메탈 느낌을 강조한 다이얼 방식의 공기조절 버튼 등이 기존의 르노 디자인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감성 만족도를 준다.

계기반도 업그레이드됐다. 10.25인치 넓은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계기반에 지도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와 계기반 양쪽에서 지도 화면을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한 길찾기가 가능하다.

레이와 계기반 양쪽에서 지도 화면을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한 길찾기가 가능하다.

주행성능도 탄탄하다.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TCe 260 모델에는 신형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습식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EDC)가 조합되어 있다. 최고출력 152마력, 최대토크 26.0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저·중·고속 영역을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 전반적인 주행 감성은 세단 쪽에 가까울 정도로 안락하고, 고속 주행시의 안정감도 뛰어나다. 공인 복합 연비는 13.2km/L로 준수한 편이다. XM3의 가격은 1719만~2532만 원이다.

●'트레일블레이저' 역동적 주행 성능 매력

한국지엠 쉐보레 브랜드의 강점은 자동차의 본질인 탄탄한 달리기 성능에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이 유전자들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엔진은 1.2리터 가솔린 E-터보 프라임 엔진과 1.35리터 가솔린 E-터보 엔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솔린 E-터보 엔

진을 선택하면 쉐보레 특유의 역동적인 달리기 성능을 만끽할 수 있다.

중형 세단 말리부에도 적용된 1.35리터 가솔린 E-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24.1kg.m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최대 토크가 1600~4000rpm의 폭넓은 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도 폭발적인 가속감을 누릴 수 있다.

고속 주행시에도 차체가 단단하게 가라앉아 지면을 움켜쥐고 달리는 듯한 안정감을 주며, 고속 코너링에서도 SUV 특유의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성능을 고려하면 연비도 훌륭한 편이다. 전륜 구동에 무단변속기를 장착한 LT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13.2km/L, 4륜구동과 9단 변속기가 조합된 RS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11.6km/L다. 실내 공간도 기대 이상이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휠베이스(축거)가 2640mm로 경쟁모델인 기아차 셀토스(2630mm)보다 길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1910만~2711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법정 다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서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면서 대신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오픈네트워크(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김명근 기자

티스테이션, '스마트픽업' 이벤트 진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티스테이션'이 30일까지 한국타이어 제품 4개를 구매하는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픽업' 서비스를 1000원에 제공한다.

'스마트픽업'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로 전문 드라이버가 방문해 직접 차를 수령하고 타이어 교체 작업 후 되돌려주는 티스테이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국타이어의 승용차 또는 SUV용 제품 4개를 구매하면 스마트픽업 1000원 이벤트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원성열 기자



"보석 모양 소금 사세요"
한화 갤러리아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고메이494한남이 '보석 모양 소금'을 선보였다. 구운 채소, 구운 생선, 스테이크 등에 곁들여 먹으면 된다. 식탁 위에 올리면 장식 소품으로도 가능하다. 히말라얀 락솔트, 페르시안 블루 솔트, 오스트리아 알파인 솔트, 볼리비아 로즈 솔트 등으로 구성했다.
정영욱 기자, 사진제공 | 한화 갤러리아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재개... '개인별 옵션' 적용

5가지 카테고리 노출정도 조절

네이버가 급상승검색어 서비스(사진)를 재개했다.

네이버는 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단했던 급상승검색어(이하 급검)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다시 시작

했다. 특히 새로 시작한 급검 서비스는 이용자가 검색어 차트의 가중치를 직접 설정해 어떤 차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급검 서비스에 인공지능(AD)기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오'(Rank It Yourself)를 적용했다. 이슈별 뷰어보기와 이벤트 할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시사 등 5가지 카테고리 급검 차트 노출 정도를 개인 선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미 많은 이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기

회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또 검색차트판을 다양한 키워드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던 검색어트렌드 서비스를 검색차트판에 적용할 예정이며, 차트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어트렌드 외에 음성검색, 음악검색 등 새로운 차트도 검토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교육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생의 취업 노하우

치열한 취업 시장... "실무 실습기회 중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올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면 수험생들은 가능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합격에 도달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줄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업보다 취업에 더 큰 비중을

지니는 주택관리사는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현재 공급된 공동주택의 물량에 비해 주택관리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주택관리사 취업 시장에서 홀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합격생들은 도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취업과



토리를 공개했다.

한 합격생은 "관리소장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며 "취업에 나가기 전 행정도 다뤄보고, 시설도 돌아보고, 직접 부대끼면서 입주민 민원도 나가보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무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해 "다 른 학원보다는 에듀윌이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배들이 실무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이 제한에 대해 "위탁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는 50대이지만, 70대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주택관리사는 정년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합격생들의 다양한 주택관리사 취업 노하우는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